

동중부 KCLC Newsletter



진정한 여행 - 나짐 히크메트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씌여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려지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멸의 춤은 아직 추어지지 않았으며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비로소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다.

A true travel - Nazim Hikmet

The most magnificent poem hasn't
been written yet.
The most beautiful song hasn't been
sung yet.
The most glorious day hasn't been
lived yet.
The most immense sea hasn't been
pioneered yet,
The most prolonged travel hasn't been
done yet.
The immortal dance hasn't been per-
formed ye,
The most shine star hasn't been discov-
ered yet.
When we don't know any more what
we are supposed to do,
it's the time when we can do true
something.
When we don't know any more where
we are supposed to go,
it's the start when the true travel has
just begun.

첫 서약을 축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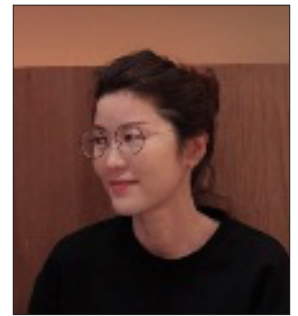
첫 서약을 하시는 자매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임문자 비비안나
(포도원팀)



한미영 도미니카
(씨앗팀)



서희선 글라라
(포도원팀)

지원기를 마치고 수련기를 시작하신 형제, 자매님들 소개합니다.



지난 6개월간 지원기를 마치고 만남을 가졌습니다. 수련기를 시작하신 7분
의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이순이 데레사, 박상희 로사, 최동호 다윗, 최은경 모니카, 이미경 모니카
(*사진에 없는 지원기 자매님: 양윤정 카타리나, 김선령 아녜스)



저희 곁을 떠나신 나무다리팀
이순용 바오로 형제님을 생각하며...

+ 사부곡(思父曲)

이 땅 위의 나그네길
모두 마치시고

생명의 분향
흠으로 돌아가신 아버님.

가족의 행복을 위해 한평생
말없이 수고하셨지요

좋은 남편이며 아버지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셨지요.

당신께서 남기고 가신
많은 사랑의 추억들

우리의 가슴속에서 오래오래
별이 되어 빛날 거예요.
(시 정연복)



주님이 주신 좋은 세상 우리 함께 지켜나가요!

우리의 작은 노력이 지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바다 생물들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는 것 한가지
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매립으로 버린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들
어갔을 경우 물고기들이 마스크 귀고리
에 끼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합니
다.

그래서 저는 번거롭지만 마스크를 버릴
때는 마스크와 귀고리를 가위로 분리해
서 버리고 있습니다.

이미 실천하고 계신 분들과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
시면 환경 살리기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
해서 나누어 드립니다.

[김 연희데레사, 평화팀]





포도원팀 소식

9/24(토)에 친목도모와 10월에 있을 2명의 첫서약자를 축하하기 위해 Clifton으로 가을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자연과 좋은 날씨를 즐기며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주님께 찬미!!

씨앗팀의 야외 대면 모임 & 친교



실로암팀 소식

10/9(일)에 오랜만에 대면 모임을 했습니다. 와이너리 근처 미국 성당에서 함께 미사를 드리고, 와이너리에 가서 그동안 못다했던 이야기와 피정 후 나눔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구름 한점 없는 가을 하늘과 좋은 날씨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묵상

from Fr. Macario

성 이냐시오 로올라 축일 콜로새 31,1-5,9-11

“여러분은 옛 인간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 버리고, 새 인간을 입은 사람입니다. 새 인간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모양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면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콜로새 3,9-10)

오늘은 1521년에 스페인 팜프로나시 전투 중에 입은 부상에서 시작된 이냐시오 성인의 회심 500주년을 기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눈으로 모든 것을 보자”는 정신으로 ‘이냐시오 해’의 막이 내리는 날이다. 누가 알았을까? 그 한 사람의 부상으로 시작된 역사가 교회안에 예수회가 만들어지고 예수회를 통해서 하느님이 일하시는 은총이 지금까지 주어지고 있음을... 인간의 눈에는 작아도 하느님은 눈에는 결코 작지 않은 신비를 ...

회심이란 하느님의 길에서 벗어나 있는 삶이 다시 하느님 곁으로 되돌아오는 시간. 다시. 돌아오기. 머물기... 하느님의 자비의 품으로 되돌아오는 자신의 삶을 보수하는 시간들. 그 보수작업후에 흉터가 남더라도 회심하는 사람에게는 그 흉터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감사의 징표.

오늘 저녁 미사로 이냐시오 해는 끝이 나지만 우리의 회심의 길은 또 다시 계속되어야 하는 초대이니 내일부터 다시 회심의 길을 떠나는 나를 상상한다.

그 상상이 매일의 주님과의 대화로 현실화 되는 모습을 이냐시오 성인은 희망하지 않을까? 하지만 하느님은 우리 사람에게 결코 우리가 길을 벗어났음을 알려주고 목적지로 자동으로 안내하는 GPS를 장착해주지 않으셨으니 스스로의 시행착오속에서 이 길을 가는 것을 잊지 말기. 그렇기에 기도. 친구. 공동체가 바로 나의 GPS임을 잊지 말기.

마태오 7,6,12-14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얼마나 좁고 또 그 길은 얼마나 비좁은지, 그리로 찾아드는 이들이 적다.” (13-14)

공기중에 몸이 차지하는 넓이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다이어트. 굶어서 살을 빼려고 삶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몸은 갑자기 줄어드는 몸무게에 비상상태를 선포하고 자기 보호를 하기 시작하니 체중을 줄이기보다는 최소 6개월간에 걸쳐서 몸이 기억하는 자기만의 체중조절점 (set point)를 낮추라는 이야기였다. 이 조절점을 낮추는데 대략 6개월 걸리고 그 기간에 형성된 습관들 - 야식 안하기, 걷기, 단 것 먹지 않기 등 등 - 을 유지하면 다이어트는 성공한다는 것이었는데 다이어트는 ‘습관’이라는 말에 조건 없이 동의했던 기억.

오늘 예수님 말씀이 마음에 무엇보다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아닐까? 하느님이 만드시는 나라의 문을 지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필요하지 않은 것을 없애는.. 그 삶은 단기간에 승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내 마음의 ‘습관’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살펴보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하루.



갈라티아서 6,14-18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것도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 나는 예수님의 낙인을 내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14, 17)

烙印

주님, 바오로 사도가 말하는 낙인의 의미는 원래 한자의 의미대로 당신의 뜨거운 사랑의 십자가의 불로 화상을 입어 영원히 지워지지 않은 당신의 사람이라는 고백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는 세례때 저의 심장에 그 낙인을 받은 사람이니 제가 당신에 속한 사람임을 의미하는 그 낙인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삶에서 날카로운 아픔과 오해의 칼에 베어질 지라도 당신이 주신 그 낙인의 은총을 건드릴 수 없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아멘.

성녀 마르타, 성녀 마리아와 성 라자로 기념일

요한 1서 4,7-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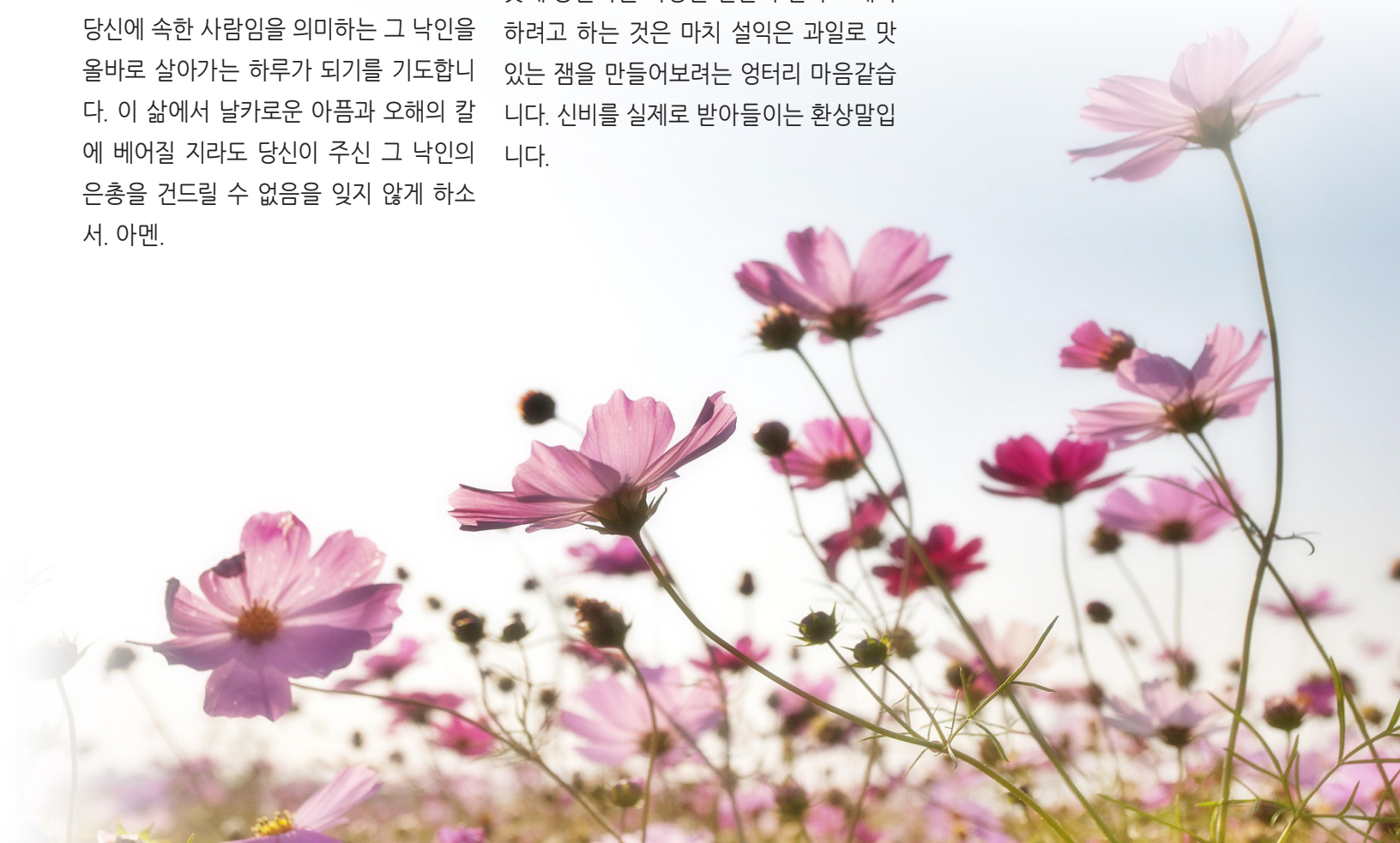
“사랑하는 여러분,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11)

주님, ‘나를 움직이고 있는 힘이 사랑인가?’라는 질문앞에서 당혹스러웠던 기억속으로 돌아갑니다. 여전히 당혹스러운 저를 이 아침에도 만납니다.

사랑은 모든 “심리적” 문제의 뿌리이자 해결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문제의 근본과 해결책이 한 곳에 공존하는 사랑을 인간의 언어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설익은 과일로 맛있는 잼을 만들어보려는 엉터리 마음같습니다. 신비를 실제로 받아들이는 환상말입니다.

그렇지만 사랑의 신비는 우리를 현실의 긴장속으로 몰아잡니다. 당신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 팽팽한 현실속에서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온 삶으로 그 팽팽한 긴장을 거부하지 않고 고통속에서도 당신의 삶으로 사랑의 파문을 당한 모든 사람을 용해시키고 끝까지 십자가위에 계시는 삶을 살아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십자가를 안고 당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마태오 16.24)

이 삶에서 저는 당신의 사랑을 외치기 보다는 제 말에 제 행동에 제 지향에 제 태도에 당신 사랑의 지문을 남 모르게 남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멘



CLC-USA 소식

- 8월 8일~13일 스페인의 만레사에서 열린 세계 CLC에서 주최하는 [세계 CLC 양성을 위한 모임]에 김은애 크리스티나 의장께서 미국 국가 대표로 참석.
- NCC: 차기 USA 의장 및 총무 선출 식별

NKCLC-USA 소식

- 이근상 신부님과 영신수련의 역동성 워크숍 예정 10월 15일, 16일
- 수퍼비전 워크숍 안내, 각 팀의 기도자료 survey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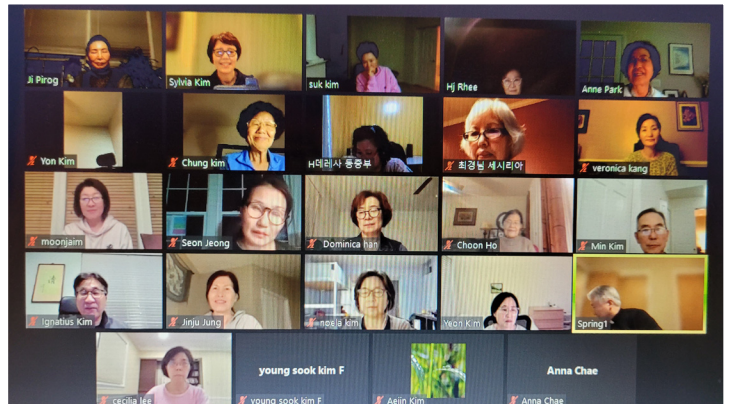
동중부 소식

- 9월 17일 가이드 모임 : 연피정 & 서약피정 돌아보기, 내년 피정 계획 안내 (8월 10일~18일, 8박9일 지도 사제 : 박병관 신부님), 가이드팀 변동, 첫 서약자 & 유기 서약자 안내, 수련기 & 지원기 현황
- 9월 15일 팀장 모임 : 팀 현황, 피정 돌아보기, 내년 피정 안내, 예정 서약 날짜, 뉴스레터 원고 모집
- 9월 24일 양성부 모임 : 피정 돌아보기, 클러스터 나눔주제 및 날짜논의, 북클럽 날짜 조정 필요성 나눔



◀ **2022 침묵 연피정:** 그동안 팬더믹으로 중단되었던 연피정이 3년만에 로올라 피정집에서 있었습니다. 8월12일~14일(4박 5일)에 봉사자를 포함한 31명의 인원이 예수회 정강엽 베네딕도 신부님과 “우리안에 심어진 말씀”이라는 주제로 피정을 마쳤습니다.

▶ **2022 5주 서약 피정 (Zoom):** 김성호 베네딕도 신부님과 “세상 변화속에 이나시오 영성으로 살아가기” 라는 주제로 마쳤습니다.



New Executive Council Officers CLC-USA 새 임원 소개합니다.



차기 의장: Deb Flynn

식별 과정을 거쳐 노스웨스트 지역의 **Deb Flynn**이 차기 미국 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Deb Flynn은 2002년부터 CLC의 회원이었으며 2014년부터 Northwest의 의장을 역임하였습니다. Deb은 올해 종신서약을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고 있으며 두 명의 성인 자녀가 있습니다. Mrs. Flynn은 공인된 영적 지도자이며 피정에서 movement pryayer를 이끌고 있습니다.



총무: Tamuyen Nguyen

Dong Hanh Southwest 지역의 **Tamuyen Nguyen**이 총무로 선출되었습니다.

Tamueyn Nguyen 새 총무는 의사이며 세 자녀가 있습니다. 올해 남편과 유기 서약을 했으며 SEED 수련회, 메리지 리뉴얼 워크숍 및 청년사도직에 참여했습니다.